

161013 요한삼서 강해

1. 제목- 저자의 이름과 편지 집필 순서 반영 (이오안누 에피스톨레 감마)

요한의 세번째 편지,

2. 저자와 기록연대

본서의 저자가 자신을 (장로)라고 부르고 있으며, 본서의 내용이니 사상이 요한 이서와 유사, 기록연대도 95년 이전인 90-95년 사이

3. 집필동기와 배경

요한 일,이서와 마찬가지로 외적으로는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81-96), 내적으로는

각종 이단과 사도들의 순교 등으로 인한 지도자의 부족 등으로 인한 교회의 시련 시기

요한 삼서의 내용이 요한의 다른 서신들과 동일하나 특별히 순회 교사의 접대 문제와

관련하여 언급하고 있다.

순회사역자들은 자신을 대접하는 성도들의 집에 유하며 식사를 해결했고 다음 선교지로 갈 수 있는 여비를 제공 받았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이 미혹함으로써 참된 순회 교사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순회 교사들을 절 섬기던 교회의 신실한 지도자 가이오와 앞에서 언급한 폐단을 이용해 자기의 지위를 높이고 순회 교사들을 박대하며 심지어 순회 교사들을 잘 접대하던 성도들을 출교 시키는 악행을 저지르던 디오드레베를 비교하여 제시함으로써 모든 성도들이 가이오처럼 겸손함으로 주의 사역자들을 마땅히 대접하고 환대할 의무가 있음을 교훈한 것이다.

아울러 보다 근원적으로 순회 교사 접대 문제를 계기로 하여 당시 초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 지도자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고 올바른 지도자 상을 제시하고자 하는 동기도 있다. 더하여 순회 교사들의 활동을 순조롭게 하여 모든 교회들이 사도의 가르침

에 순복하도록 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서로 협력 하도록 하게 하려는 큰 목적도 있다. 이외에 부차적인 동기로는 순회 교사 데메드리오를 천거하여 가이오에게 접대를 부탁하고 사도 요한의 방문 계획을 수신자에게 알리고 있다. -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못 이해하여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자식을 부탁한 과거가 있기에 요한의 마음은 더욱 간절- 마 20:20-28)

- 요한 삼서는 가장 개인적인 서신이며 가장 완벽한 편지 형태
-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간접적 표현만

(7절-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 진리에 대항하는 거짓 세력을 구체적으로 언급(디오드레베- 이름과 저지른 악행을 일일이 거론)

1-4 시작하는 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대비를 통해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를 유도

5-8 가이오를 향한 칭찬과 격려

가이오의 선행을 칭찬한 후에 (5,6) 그러한 선을 계속 행하도록 격려(6-8)

9-12 디오드레베 에 대한 경계와 데메드리오 천거

디오드레베의 악행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 같은 자들을 경계한 사실(9-11)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로 못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는 데메드리오를 가이오에게 천거한 사실(12)을 언급

13-15 맺음말

종결부, 요한 이서와 마찬가지로 더 쓸 것이 많으나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 할 것을 기약하며(13,14) 간단한 문안 인사로써 종결